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And with your spirit.

■제1독서: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6,1 ἰσραήλ.6-7.10-13 L

그 무렵 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6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10 이사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11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12 그래서 이사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 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13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 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

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8-14

형제 여러분, 8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10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11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12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13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14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6-9.13-17.34-38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6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른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새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나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영성체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 공지사항

▪ C. Thompson 대주교님과 Felix Navarrete 문화간 사목 담당 국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영성체 후 기도 후 공지사항 때 대주교님께 화분, 영적예물과 인사를 담은 카드, 대교구 내 사회복지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합니다.

▪ 22일(주일) 미사 중 혼인예식이 강론 후에 있습니다.

신랑 김동건 안토니오 & 신부 우지은 미카엘라

■ 우리들의 정성 (03/08/2026)

▪미사 봉헌금: \$522.00 | ▪교무금: 김세동(3), 송정순(25.10-26.3), 엄영준(2-3), 정소훈(3), 최교균(3-4), 최민해(3), 최정자(3), 서병욱(IU)

March 15, 2026 사순 제4주일

■ 전례 봉사자

	사순 제4주일(3/15)	사순 제5주일(3/22)	수난성지주일(3/29)
해설	정명호 미카엘	최낙현 미카엘	장선애 마리아
독서	정석훈 이상진	신청란 장선애	이경래 박효연
복사	신학생들	박한준 라파엘	황시윤 바오로
반주	최아영 아녜스	공승윤 수산나	한혜경 아녜스
제대	이명희 비비안나	공승윤 수산나	조윤경 로사
예물	이지오 엄유하	이지성 정휘인	류지안 남고은

▪ 독서 순서는 담당이신 김은경(파울리나) 자매님께 문의해 주세요.

▪ 성주간 전례 안내

1) 3월 29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오전 11시

-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수난 복음

- 수난복음 독서자 : 추후 공지

- '가난한 이들을 위한 공동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준비된 바구니에 봉헌해 주시면 되며, 전액 대교구에 보냅니다.

2) 4월 2일(목)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세족례), 성체조배: 저녁 7시 30분

3) 4월 3일(금) 주님 수난 성금요일(십자가 경배): 저녁 7시 30분

- 해설 및 독서자 : 추후 공지

4) 4월 4일(토) 주님 부활 성야 미사: 저녁 7시 30분

-해설 및 독서자 : 추후 공지

5) 4월 5일 주님 부활 대축일 낮미사: 오전 11시

- 성지 보호 및 복구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성주간 전례 봉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지 보호 및 복구를 위한 2차 현금'을 봉헌하지 못하신 분은 부활 제3 주일까지 내 주시면, 모아서 대교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순헌금 봉헌: 사순시기동안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단식, 금육, 절제 등으로 절약하여 모은 금액은 부활시기 중에 <교무금함> 또는 봉헌 때 내 주시면 됩니다.